

#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척척금융... “팔방미인 미래 노다지”

## 데이터가 돈이다

### ② 마이데이터 시대

의료부터 은행·자산관리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활용 무궁무진 비대면 시대에 기업들 사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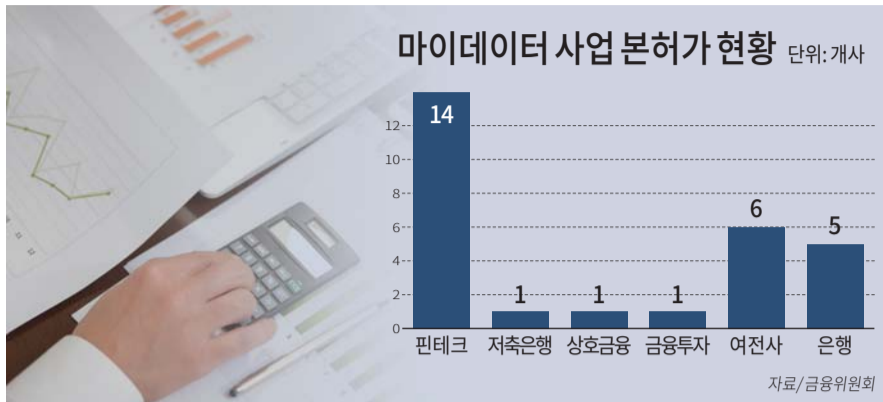
OO페이 등으로 데이터가 쌓였다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쌓인 데이터가 기업 혹은 정부의 소유물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쌓인 데이터는 소비자 각각의 것이다. 때문에 기업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이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은 이날 기준 총 28개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 5곳과 여신전문금융회사 6곳, 금융투자, 상호금융, 저축은행 각 1곳, 핀테크 14곳이다.

#### ◆금융데이터 분석, 마이데이터 본허가 받아야

지금까지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온 핀테크 기업들은 정보를 긁어오는(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예컨대 소비자가 토스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이체 내역을 보기 위해 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토스는 해당 은행에서 스크래핑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와 분



석해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것. 그러나 이 경우 일부 금융사들은 스크래핑을 허용하지 않아 모든 계좌에 있는 자산을 분석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API 방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일정 규격에 맞게 받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누구나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을 허가 받은 기업에 한해 표준API를 통해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며 “현재는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난 기업을 중심으로 표준 API 유지비용 등을 나눠내는 것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인 이유는 미래 수익원 창출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더욱 편리한 디지털 금융을 원하는 소비자는 늘고 있다. 기왕이면 하나의 앱에서 수

입·지출을 관리하고 투자상품까지 효과적으로 가입하길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 지자 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 또한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어떤 아키텍처로 서비스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PI서버 비용 외에도 서비스 개발 비용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있

지만 지금 시기를 놓치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어떤 분야와 결합하느냐에 달라

이들은 대표적으로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전망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패턴이 유사한 고객별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뱅크샐러드의 경우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자금상황, 소비패턴을 분석해 대출 상품이나 카드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을 가입할 경우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낸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비자의 현금흐름을 분석해 연체예측 및 미납 등을 방어하는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서비스를 통해 당장의 수익원을 확보할 수 없지만, 소비자의 애프터마켓을 높여 부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들을 통한 생애주기별 관리서비스도 출시한다. 특히 여기에는 통신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사회초년생의 대안신용평가를 마련할 수 있다. 휴대폰 통신공과금 납부와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한 소비습관 등을 분석해 사회초년생에 맞는 대출상품을 추천한다. 은퇴자의 경우 연금자산현황, 예상 수령금액 등을 분석해 은퇴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해 수익원을 창출하는 방안도 나온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원은 “개인금융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SNS, 위치정보, 의료정보 등 타 분야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등장할 수 있다”며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안전 및 보안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쇼핑몰 규제, 골목상권에 등 돌리게 만들어”

>> 1면 '이슈 짚어보기'서 계속

유통산업발전법 실효성 의문 잇따라

#### ◆스타필드도 의무휴업?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도 뜨겁다. 21대 국회에서 15개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그중 통과가 유력한 것은 홍익표 의원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상권이 형성된 상업보존 구역으로 확대한다. 계열사 재산을 합쳐서 10조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을 강제한다. 스타필드·롯데몰이 복합쇼핑몰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보호와 휴업일이 따로 없는 복합쇼핑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다. 사람들이 단순히 쇼핑만 하러 복합쇼핑몰을 찾지 않으며 단순히 즐기러, 유희를 위해 찾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복합쇼핑몰을 닫는다고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대 여당이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지 않고(소상공인의) 적을 만들기에만 급급해 이런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을 즐기러 가는 곳

이기 때문에 규제를 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구를 보아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통한 규제가 재래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이익단체들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식자재 마트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휴업 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 규칙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영세한 기업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근로기준법의 숨겨진 통로이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방치하는 ‘구멍’이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발도 거세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영업정지·영업제한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불안집에 부채질하는 경우라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영양군 공고 제2021-150호

## 영양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산60번지 일원의 영양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영양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결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합니다.

2021. 2. 26.

영 양 군 수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영양제2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 나.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산60번지 일원
- 다. 사업규모 : 111,271㎡
- 라. 시행자 : (주)영양제2풍력발전

#### 2.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4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석보면 삼의리 산60번지 일원	-	111,271	111,271	-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면적변경 - 당초 148,068㎡ → 변경 111,271㎡ (감 36,79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발전기 5기 제척)

#### 3. 공람사항

가. 영양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 4.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기간 : 2021. 2. 26. ~ 2021. 3. 11.까지(14일간)
- 나. 장 소 : 영양군청 지역경제과, 석보면사무소

#### 5. 의견제출

- 가.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
- 나. 제출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내 지역경제과 도시담당 및 석보면사무소
- 다. 의견제출 내용 : 영양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지역경제과(☎054-680-6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